https://doi.org/10.18856/jpn.2021.27.1.005

국제가요제와 세계 감각*
—냉전 시기 대중음악사 연구의 인터아시아적 관점과 유라시아적 상상력

김성희**

1. 서론: “연예계의 불도저” 그리고 국제가요제 시대의 개막
2. 서울에서 도쿄로: 한국 대중음악인들의 일본 국제가요제 도전사
3. 도쿄에서 다시 서울로: 한국가요제와 서울가요제
4. 인터아시아적 관점과 세계시장: MBC 서울국제가요제와 TBC 세계가요제
5. 유라시아적 연결망: 알만도 모레노(Armando Moreno)와 국제가요제연맹(FIDOF)
6. 결론: 독재 아래서, 축제 안에서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국제가요제가 어떻게 한국 대중음악가들의 세계 감각을 형성하게 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1970년 이봉조가 일본 야마하 세계가요제에서 입상한 이후, 한국의 작곡가와 가수들은 일본의 국제가요제에 참가하였다. 일본 국제가요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대중음악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다. 단순히 교류에

* 이 연구는 필자가 2019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외국인 학생 대상 강의였던 〈한국문화의 이해〉를 진행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당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해주었던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덧붙여 이 글은 2020년 12월 4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의 일부이다. 토론자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이정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5782).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그치지 않고, 일본 국제가요제의 자극을 받아, 1978년에는 문화방송이 MBC 서울국제가요제를 1979년에는 동양방송이 TBC 세계가요제를 개최하였다. MBC는 1978년과 1979년 가요제를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치렀다. 반면, TBC는 국제가요제연맹(FIDOF)의 도움으로 미주와 유럽,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가수들까지 참여시켰다. 이에 MBC도 1980년부터는 국제가요제연맹의 협력을 얻어 유럽의 유명 작곡가들을 유치했다.

이 논문은 한국 대중음악 연구의 공백이었던 국제가요제를 중심으로 냉전 시대 한국 대중음악과 세계 대중음악의 연결망을 재발견한다.

(주제어: 국제가요제, 세계 감각, 이봉조, MBC 서울국제가요제, TBC 세계가요제, 국제가요제연맹(FIDOF), 유고슬라비아)

1. 서론: "연예계의 불도저" 그리고 국제가요제 시대의 개막

> 그(이봉조-필자주)는 식사도 양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아예 못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이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나는 깡통 50개에 김치를 담아 가지고 갔다. 한달 동안 아테네에 머무르며 호텔 방에서 네 사람의 밥을 지어 김치로 식사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김치가 모자라 한 조각을 가늘게 찢어 조금씩 나눠 먹던 일이 새롭다.[1)]

이봉조는 단 한 끼도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1971년 여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송 올림피아드(Ολυμπιάδα Τραγουδιού; Olympiade de la Chanson)에 참가했을 때 그는 김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정확하게 말해, 그의 배우자이자 참가 가수이기도

1) 현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문학마을, 1997, 250쪽.

했던 현미가 김치를 챙겨갈 수밖에 없었다. 처음 며칠 간은 매니저 자격으로 동행한 동양방송(TBC) 음악부장 황정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한국일보 연예부 기자 정홍택과 함께 일행 네 사람이 김치를 나눠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3일 만에 10통밖에 남지 않게 되자, 일행 모두가 이봉조에게 김치를 양보하게 된다.[2)]

김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봉조의 감각은 세계로 열려 있었고, 그의 야심은 해외로 향해 있었다. "연예계의 불도저"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는 대중음악 작곡가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이트클럽을 갖고 있던 사업가이기도 했으며,[3)] 연예협회 위원장이자 경음악 연주자들의 모임인 "코리어 하머니 클럽"의 부회장으로 한국 연예계의 실력자이기도 했다.[4)] 그가 작곡한 〈안개〉가 1969년 일본의 빅터 레코드에서 발매되며 좋은 반응을 얻자,[5)] 그는 가수 정훈희와 함께 이듬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야마하 세계가요제[6)]에 참가한다. 그리고

---

2) 정홍택, 〈[한국 연예기자 1호 정홍택의 지금은 말할 수 있다]〈43〉 그리스 세계가요제〉, 『한국일보』, 2009.1.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901200111927560.

3) 〈「李鳳祚아워」 充実 꾀해 自己 「나이트클럽」 開業〉, 『조선일보』, 1970.5.19., 6면.

4) 〈李鳳祚씨 뽑아〉, 『조선일보』, 1970.3.24., 8면; "코리어 하머니 클럽"의 회장은 길옥윤이었다. 〈会長에 吉屋潤씨〉, 『조선일보』, 1970.1.20., 5면.

5) 정확하게 말해, 다시로 미요코(田代美代子)라는 가수가 〈안개〉를 일본어로 번안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 곡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프랑스 가수 이베트 지로(Yvette Giraud)가 다시로 미요코에게 권유해서 취입한 것이라고 한다. 다시로 미요코는 한복을 입고 긴자(銀座)의 비원(祕苑)이라는 한국식 요정에서 신곡 발표회를 했는데, 이 행사에는 패티 김도 참석했다. 〈「안개」 日音盤 人氣〉, 『경향신문』, 1969.9.20., 5면.

6) 제1회는 "도쿄국제가요음악제(東京国際歌謡音楽祭)"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고, 2회부터는 폐지될 때까지 "세계가요제(世界歌謡祭)"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른 세계가요제(예를 들어, TBC 세계가요제)와 구분하기 위해 "야마하 세계가요제"로 칭할 것이다. ヤマハ音楽振興会, 〈第1回東京国際歌謡音楽祭(第2回より「世界歌謡祭」に名称変更) The 1st Tokyo International Popular Song Festival〉, 『世界歌謡祭』, https://www.yamaha-mf.or.jp/history/e-history/wpsf/

출품된 580여 곡 중 10위 안에 드는 “입상”을 하게 된다.[7]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국제가요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1971년 7월에는 위의 인용문에서 현미가 회고하는 대로, 그리스 아테네로 가고, 11월에는 다시 일본 도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2년에도 다시 아테네와 도쿄로 간다.[8] “연예계의 불도저” 이봉조는 정말이지 불도저처럼 거침없이 국제가요제의 시대를 열어나간다. 그렇게 9년이 지나 1979년, 이봉조는 제1회 TBC 세계가요제[9]의 심사위원석에 앉게 된다.[10] 그는 참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몸담았던 TBC에서 자신과 세계를 누볐던 황정태와 함께 국제가요제 개최를 주도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국제 혹은 세계가요제를 중심에 놓고 보면,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는 ‘수출역군’들이 써나간 개발과 산업화의 서사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봉조가 열었던 한국 국제가요제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봉조를 시작으로 길옥윤, 김기웅 등 작곡가와 정훈희를 시작으로 현미, 박경희, 혜은이, 윤시내, 민해경, 양수경에 이르는 실력 있고 이름 있는 가수들이 국제가요제에 참가했다. 패티 김, 조용필, 김연자 역시 국제가요제를 통해 실력과 대중성을 검증받은 가수들이었다. 이들이 참

---

7) 이 대회는 대상 1명을 선정하고, 입상자 9명을 뽑는 방식으로 시상하였다.

8)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가요제에도 초청받았으나 이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아르젠틴 世界歌謠祭에 「안개」 콤비 參加〉, 『동아일보』, 1971.2.22., 5면.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정홍택은 1971년 봄에 이봉조와 함께 “칠레 세계가요제”에 참가하려 했으나, 칠레의 정권이 바뀌어서 대회가 취소되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아르헨티나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당시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 아르헨티나는 1971년 3월, 정권이 바뀌었다. 정홍택, 〈[한국 연예기자 1호 정홍택의 지금은 말할 수 있다] 〈43〉 그리스 세계가요제〉, 『한국일보』, 2009.1.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901200111927560.

9) TBC 세계가요제는 1979년과 1980년에만 열렸다. 1981년 제 3회 대회는 “방송선진화”라는 이름으로 TBC가 KBS로 통합되면서 KBS 주관으로 열린다. 하지만 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KBS는 더 이상 세계가요제를 개최하지 않는다.

10) 〈표 1〉 참조.

여한 가요제는 야마하 세계가요제, TBS 도쿄음악제, 칠레의 비냐 델 마르 국제가요제(Festival Internacional de la Canción de Viña del Mar), 그리스의 송 올림피아드, 재미 일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하와이 가요제, 재미 한인들이 주최했던 로스엔젤레스 가요제, 뉴질랜드의 태평양 가요제, 그리고 아시아 방송 연맹(ABU)의 ABU 가요제 등 해외에서 열린 가요제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열렸던 MBC 서울 국제가요제, TBC 세계가요제 등 아주 다양했다.

이렇게 한국의 뮤지션, 즉 가수와 작곡가들이 많은 가요제에 참가했지만, 사실 한국 국제가요제 연구는 한국 대중음악이 어떻게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11] 그 시작이 이봉조의 야마하 세계가요제 참가였고, 그 끝도 일본 야마하 세계가요제와 TBS 도쿄음악제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내의 "국경을 넘는, 이른바 월경적(越境的) 실천"이나 "망각되었던 교류와 교차의 선"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2]

하지만 한국 국제가요제의 역사를 꼭 일본이나 아시아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본을 중핵으로 하는 구심력이 있었다면, 이를 벗어나려는 원심력도 분명히 존재했다. 주최자(MBC, TBC)들은 자신들과 참가자들(특히 외국 가수들) 사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11) 조한혜정은 직관적으로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이 식민지적 제조업 수출의 연장선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가요"가 "마이클 잭슨 마돈나를 흉내낸 것이거나 일본 가요제를 흉내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한혜정, 「글로벌 지각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24쪽.

12) 신현준, 「K-Pop의 문화정치(학): 월경(越境)하는 대중음악에 관한 하나의 사례연구」, 『언론과 사회』 13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5, 8쪽; 신현준, 「인터아시아 시각에서 아시아 대중음악을 다시 조명하기」, 『황해문화』 89호, 새얼문화재단, 2015, 65쪽.

초월하는 제3의 권위를 원했다. 한국의 두 방송국이 그러한 초월적 권위를 구한 곳은 의외로 당시 공산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 본부를 둔 조직이었다. 유고슬라비아 스플릿(Split)의 국제가요제연맹(Federación Internacionale des Organisations de Festivales: FIDOF)은 MBC 서울국제가요제와 TBC 세계가요제의 조직과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관이었다.

'한국의 국제가요제' 연구는 유고슬라비아의 '국제가요제연맹' 연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대중음악,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한국 대중음악을 "인터아시아 시각"뿐 아니라, 냉전사 혹은 냉전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제가요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지리적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까지 우리의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신현준의 지적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당대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역사가 되기에는 아직은 가까운 시기"여서 이 시기 대중음악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3] '통기타'로 표상되는 포크 음악이나, 하위문화 혹은 저항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는 "그룹사운드" 등 주로 청년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대중음악은 연구되어왔다.[14] 가요제 중에는 대학가요제, 해변가요

13) 신현준, 「1970~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 서술의 쟁점-불확정적 텍스트와 복합적 매개의 난점」, 『대중음악』 15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5, 95쪽.

14) 1970년대 한국대중음악 연구의 가장 총체적 연구라고 할 수 있었던 『한국 팝의 고고학』은 1970년대를 포크와 록 음악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신현준 · 이용우 · 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한국의 포크와 록, 그 절정과 분화』, 한길아트, 2005. 포크 음악을 중심으로 청년문화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이혜림, 「1970년대 청년문화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대중음악의 소비양상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6권 2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7-40쪽; 김창남, 「1970년대 한국 청년문화의 문화적 정체성-통기타음악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2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08, 144-165쪽; 박경애, 「한국 포크의 '도시민요'적 가능성 탐색-1970년대

제 등이 연구되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청년문화 담론에 속한 것이었다.[15] 이러한 편향 속에 국제가요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엔 대중음악계의 주류였지만, 현재에는 텔레비전 쇼에서 가끔 회고될 뿐, 아직 학문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 국제가요제이다.

이렇게 국제가요제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 탓만은 아니다. 유고슬라비아, 칠레, 그리스 등 축제가 조직되고 열린 곳과 서울을 연결하던 네트워크가 흐려지거나 사라지고, 그래서 잊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유고슬라비아(현 크로아티아)의 국제가요제연맹(FIDOF)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송화숙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울을 세계와 연결하던 국제가요제는 "나무형/뿌리형 지식"으로 재구성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이는 바꿔 말해, 국제가요제 연구가 한국대중음악사의 "다양성, 다층성, 복합성, 비균질성, 비선형성, 비선명성"을 드러내는 "리좀적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16]

본 연구는 한국 대중음악가들과 방송관계자, 연예산업 관계자들이 어

포크송과 포크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41권 2호, 한국민요학회, 2014, 53-77쪽. 박용규는 포크와 록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분석한 바 있다. 박용규, 「1970년대의 텔레비전과 대중음악-청소년 대상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7, 5-29쪽. 김필호의 연구는 문화제국주의론과 민족문화론을 1970년대 록음악과 결부시켜 논의했다. 김필호,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록음악-한국 팝의 고고학」, 『문화과학』 6호, 문화과학사, 2005, 211-228쪽.

15) 신현준 · 이용우 · 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한국의 포크와 록, 그 절정과 분화』, 한길아트, 2005. 임형순은 캠퍼스밴드를 중심으로 대학가요제와 해변가요제를 다룬 바 있다. 임형순, 「7080 캠퍼스 밴드가 한국 록 음악에 미친 영향」, 『대중음악』 13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4, 8-32쪽.

16) 송화숙, 「대중음악학, 대안적 학문성으로서의 흐름과 전망」, 『음악과 문화』 42호, 세계음악학회, 2020, 105-106쪽.

떻게 국제가요제에 참가하고, 조직했는지,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어떻게 세계 음악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마디로 본 논문은 수용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연구이다. 한국 대중음악 생산자들은 국제가요제를 경험해가며 일본 너머의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이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대중음악계와 교류하는 법을 배워갔던 냉전 시대,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한국 대중음악인들에 관한 것이다.

2. 서울에서 도쿄로: 한국 대중음악인들의 일본 국제가요제 도전사

이봉조가 1970년 도쿄에서 상을 받기 전까지는 한국 대중음악인들에게 세계란 곧 미8군 무대였다. 예를 들면, 1979년 MBC 서울국제가요제와 1982년 제1회 하와이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윤복희는 "너 정도 실력이면 미팔군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미8군 "연예프로덕션"의 오디션을 보는 것으로 자신의 가수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17] 현미 역시 〈밤안개〉로 인기를 얻고, 그리스 아테네의 무대에 서기 전에는 "벨라"라는 예명으로 미8군 무대에 활약했었다.[18] 이들에게 세계란 미8군 무대를 통해 열려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8군을 통해서만 세계를 접한 건 아니었다. 현미는 이봉조가 어떻게 영감을 얻고 곡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집에 있을 때 이봉조 씨는 늘 라디오를 끼고 살다시피 했다. 그의 음악

17) 윤복희, 『저예요, 주님』,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11, 88-89쪽.
18) 현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문학마을, 1997, 100쪽.

> 에 대한 열정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주로 일본 음악방송을 듣곤 했는데 마음에 드는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녹음해뒀다가 편곡을 하기도 했다. 하루는 밤늦게 라디오를 듣던 그가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무언가 그의 가슴에 번쩍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던 모양이었다.[19]

현미에 의하면, 이봉조는 늘 "라디오를 끼고 살다시피" 했는데, 주로 "일본 음악방송"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냇 킹 콜(Nat King Cole)의 〈잇츠 론섬 올드 타운(It's Lonesome Old Town)〉을 듣고 현미의 대표곡 〈밤안개〉을 만들게 된다.[20] 일본 음악방송이 재즈와 블루스 등 서구 음악의 창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1960년대 중후반, 이봉조는 "일본색조가요"를 만들고 연주하는 "가요인"으로 언론의 비난받기도 하고,[21] 일본가요를 표절했다며 3곡이나 한꺼번에 방송금지를 당하기도 한다.[22]

표절 혐의는 이봉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이봉조와 함께 3대 작곡가로 불리던 박춘석과 길옥윤도 일본가요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23] 1960년대 중후반, 일본색 짙은 가요를 만든다고 비난받던 이들은 1970년대에 이르면 국가의 명예를 빛낸 애국자들로 변모한다. 일본에서 국제가요제가 열리기 시작하고,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이 이 대회에 국가를 대표해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발 빠르게 일본에 진출한 이는 "불도저" 이봉조였다. 그는 본인의 곡 중 가장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안개〉[24]를 제1회 야마하 세계가요제에 출

---

19) 현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문학마을, 1997, 130쪽.
20) 현미의 〈밤안개〉가 큰 인기를 얻자, 냇 킹 콜의 원곡을 비롯해서 7개에 이르는 서로 다른 버전의 〈밤안개〉가 5개의 레코드사를 통해 발매되었다고 한다. 〈레코드街 出血경쟁〉, 『경향신문』, 1963.11.16., 8면.
21) 〈日本에 미쳤나 소갈머리 없는 13名의 歌謠人〉, 『경향신문』, 1965.8.4., 5면.
22) 장윤환, 〈표절 판치는 歌謠界〉, 『동아일보』, 1968.7.23., 5면.
23) 〈『표절』이다 『偶合』이다 放倫判定과 歌謠界반발〉, 『동아일보』, 1968.9.12., 5면.

품한다.

야마하 세계가요제는 1회부터 대단한 관심을 불러 모은 대회였다. 580여 곡이 출품됐으며,[25] 오직 44곡이 예선에 참여하여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일본무도관(日本武道館大ホール)에서 개최된, 규모로만 따지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능가하는 큰 대회였다. 야마하 음악진흥회(ヤマハ音楽振興会)가 주최하고, 일본 외무성, 일본 문화청, 도쿄도(東京都) 등이 후원을 맡았으며, 도요타, 소니, 시세이도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킹레코드(キングレコード), 일본 컬럼비아(日本コロンビア), 일본 그라모폰(日本グラモフォン)、도시바 음악진흥(東芝音楽振興) 등 음악 관련 기업들도 협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일본의 문화적 역량이 총동원된 대회였다.[26] 이 대단한 대회에서 이봉조는 정훈희의 〈안개〉로 입상을 하게 된다.[27] 국제가요제는 거의 언제나 참가자들의 국적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봉조는 한국 국적으로 국제가요제에서 수상한 첫 대중음악 작곡가가 되었다.

그가 입상을 하게 되자, 세계 각국의 가요제 주최 측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 1970년대는 국제가요제의 시대였다. 이탈리아의 산레모가요제(Festival della Canzone Italiana di Sanremo)를 시작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 세계가요제가 열리고 있었다. 그 중 산레모가요제와 그리스의 송 올림피아드(Ολυμπιάδες Τραγουδιού)의 관계자들이 이봉조에게 자신들의 가요제에 참가를 권유한 것으로 보

24) 〈李鳳祚 新曲「안개」獨創的이라고 好評〉, 『경향신문』, 1967.8.5., 8면.
25) 〈東京 세계歌謠祭에 李鳳祚씨 등 셋參加〉, 『동아일보』, 1970.11.13., 5면.
26) ヤマハ音楽振興会, 〈第1回東京国際歌謡音楽祭(第2回より「世界歌謡祭」に名称変更) The 1st Tokyo International Popular Song Festival〉, 『世界歌謡祭』, https://www.yamaha-mf.or.jp/history/e-history/wpsf/
27) 이 대회는 대상 한 명을 선정하고, 입상자 9명을 뽑는 방식으로 시상하였다.

인다.[28] 야마하 세계가요제의 입상과 함께 그는 국제가요제 주최자들의 주요 초청대상이 된 것이었다.

국내에서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온 운동선수처럼 영웅 대접을 받는다.[29] 부산항에서부터 서울의 센트럴호텔까지 연이어 환영회가 열리고,[30] 문화방송(MBC)은 황금시간대(8시 15분)에 이봉조가 참가한 야마하 세계가요제를 녹화방송하기도 한다.[31] 일본문화개방 이전이었기에 일본어를 방송할 수가 없어서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32] 야마하 세계가요제는 몇 번에 걸쳐 방송되고, 끊임없이 이야기된다.[33] 그리고 이봉조는 1971년 연말에 문화공보부가 주는 "대한민국 예술상"을 수상한다.[34] 한때 "일본색조" 노래를 만들고 연주하는 "소갈머리 없는 가요인"으로 취급당하던 이봉조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인으로 대우받는다. 예를 들자면, 그는 1972년 뮌헨올림픽을 대비하여 "새로운 국민가요" 〈조국의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고,[35] 건전 가요 보급에 앞장세워지기도 한다.[36]

---

28) 〈伊 산 레모 音楽祭 초청받아〉, 『조선일보』, 1970.11.27., 7면.
29) 이봉조는 1971년 초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한다. 〈南美 歌謠祭 가는 「안개」〉, 『경향신문』 1971.2.20., 6면.
30) 〈국제가요제 입상 안개 축하회〉, 『경향신문』, 1970.11.25., 5면.
31) 〈동경국제가요제 독점중계(MBC TV 밤8시 15분)〉, 『경향신문』, 1970.11.27., 8면.
32) MBC의 "임택근모닝쇼"는 정훈희와의 대담 중, 정훈희가 일본어로 부른 〈안개〉의 일부를 방송하는 바람에 방송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을 받는다. 〈放送倫理委員會 MBC TV에 견책〉, 『동아일보』, 1970.12.15., 5면.
33) 조선일보의 문화부 기자인 정영일은 정훈희와 이봉조의 입상을 1970년 가요계 최고의 "빅이슈"로 꼽기도 했다. 정영일, 〈文化界決算 70 ⑫ 放送-歌謠〉, 『조선일보』, 1970.12.18., 5면.
34) 〈文化藝術賞 受賞者 결정〉, 『동아일보』, 1971.11.20., 7면.
35) 가사는 박목월이 썼고, 노래는 현미가 불렀다. 〈새로운 国民 歌謠 「祖国의 노래」 作曲〉, 『조선일보』, 1971.10.20., 8면.
36) 건전 가요 보급에 대한 이봉조의 입장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는 하다. 한 좌담회에서 그는 대중음악인들도 "먹고 살려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니, 그들을 너무 몰아붙

이봉조의 입상은 방송 교류도 활발하게 만들었다. 1967년부터 이탈리아의 산레모 가요제의 실황이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곤 했지만,[37] 국제가요제는 한국 가수들이 참가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봉조가 야마하 세계가요제에서 입상을 하자, 산레모 가요제와 야마하 세계가요제를 비롯해 국제가요제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은 폭증한다.[38] 그래서 문화방송(MBC)은 야마하 세계가요제의 독점방송사인 후지테레비(FNS)와 제휴를 맺는다. 이에 동양방송(TBC)은 니혼테레비(NTV)와 제휴를 맺고, 한국방송공사(KBS)는 일본방송협회(NHK)와 아시아방송연맹(ABU)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간다.[39]

1971년 7월에 현미와 함께 그리스에서 귀국한 이봉조는 그해 11월 다시 도쿄로 가서 제2회 야마하 세계가요제에 펄시스터즈의 〈사랑의 교실〉이라는 곡으로 참가하고, 1972년에는 정훈희와 함께 그리스 아테네의 송 올림피아드와 일본 야마하 세계가요제에 참가한다.[40] 이봉조와

이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노래는 즐겁게 健全歌謠 「육성」이 時急하다 座談会〉, 『조선일보』, 1972.1.29., 5면.

37) 〈산·레모 칸소네典 DBS서 特輯放送〉, 『동아일보』, 1967.3.4., 5면. 1960년대 초반부터 동아방송(DBS)은 한국에 칸초네를 소개하고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칸조네를 즐깁시다〉, 『경향신문』, 1964.5.28., 5면.

38) 1971년 산레모 가요제는 처음에 동아방송(D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됐다가, 청취자로부터 큰 관심을 얻게 되자 문화방송(MBC)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기도 한다. 〈「산레모 국제가요제」(MBC TV 土(토) 밤7시50분)〉, 『경향신문』, 1971.4.17., 8면. 이 대회 1위 곡은 〈마음은 집시(Ill Cuore E' Uno Zingaro)〉, 2위 곡은 〈케 사라(Che Sarà)〉였다. 〈마음은 집시〉는 정훈희, 이용복, 김추자가, 〈케 사라〉는 이용복, 송창식, 조용필이 번안하여 불렀다.

39) 〈TV放送 國際 제휴 活氣〉, 『동아일보』, 1971.5.17., 5면.

40) 1972년 야마하 가요제는 11월 17일과 18일에 예선이 열렸고, 19일에 본선이 열렸다. 17일의 예선에는 정훈희와 함께, 스웨덴의 아바(ABBA)도 베니와 뵨(Benny & Bjorn)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아바는 남성 멤버들(Benny Andersson과 Bjorn Ulvaeus)이 메인보컬을 맡고 여성 멤버들이 코러스를 맡았다. 그래서 예선에서 떨어졌다.

정훈희의 가장 큰 성취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음악 축제인 비냐 델 마르 국제가요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1975년 〈무인도〉로 3위, 1979년 〈꽃밭에서〉로 최우수 가창상을 거머쥔다.

이봉조와 정훈희, 현미의 활약은 다른 작곡가들과 가수들을 크게 자극하여 길옥윤은 패티 김에게,[41] 김강섭은 김상희에게 곡을 주어 TBS 도쿄음악제에 참가한다. TBS 도쿄음악제는 1972년부터 도쿄방송(TBS) 계열의 "재단법인 도쿄음악제협회"가 주최한 대회로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야마하 세계가요제의 명성을 능가하게 되는 국제가요제였다. 야마하 세계가요제는 참가곡의 판권을 야마하 음악재단이 가져갔다. 반면 TBS 도쿄음악제는 참가자들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후자의 대회가 점점 더 많은 해외 작곡가와 가수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42] 하지만 한국 음악가들은 상업적 목적뿐 아니라 소위 '국위선양'의 목적으로 국제가요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야마하 세계가요제는 여전히 TBS 도쿄음악제 못지 않게 중요한 무대로 간주되었다.

1974년에는 김기웅의 곡으로 박경희가, 1975년에는 송창식의 곡으로 정미조가, 1977년에는 길옥윤의 곡(〈당신만을 사랑해〉)으로 혜은이가, 1978년에는 김기웅의 곡으로 다시 정미조가, 1980년에는 장세용의 곡으로 정재은(이미자의 딸)이 야마하 세계가요제에 참가하였다. 한편 TBS 도쿄음악제에는 패티 김과 김상희 이후에, 1977년 이성애,[43] 1978년 박경희, 1979년 선우혜경, 그리고 1981년 윤시내가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41) 〈패티金 3등 入賞 東京 국제歌謠祭〉, 『경향신문』, 1974.7.1., 8면.
42) Akira Yamaguchi, "Festivals, A Shot at the Spotlight", *Billboard,* 1977.4.30., p.67.
43) 1970년대 초 MBC 10대 가수에 뽑히는 등 인기를 누린 가수이다. 일본에서 남진의 〈가슴 아프게〉의 번안곡을 부를 정도로 일본어에 능해, TBS 도쿄음악제 참가 당시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언론으로부터 "주체의식은커녕 양식도 없는 처사"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비난받는 李成愛양〉, 『조선일보』, 1977.6.26., 5면.

이 두 가요제의 차이점이 또 하나 드러나는데, 야마하 세계가요제는 가수 못지않게 작곡가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반면, TBS 도쿄음악제는 가수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어찌 보면, 야마하 가요제는 창작자 중심이었고, TBS 가요제는 해석자 중심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훗날 한국의 방송사들이 국제가요제를 만들 때, MBC는 전자의 방식을, TBC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한다. 한국의 대중음악가들이 해외, 특히 일본의 국제가요제에 참가하면서 텔레비전 관계자, 흥행업자 등도 이들과 동행하며, 국제가요제 개최의 방식을 배우게 된 것이다.

3. 도쿄에서 다시 서울로: 한국가요제와 서울가요제

일본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2개의 국제가요제는 한국 대중음악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 가수들이 국제가요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그들은 일본 음반시장에 도전하게 된다. 이성애, 정재은 등이 국제가요제 도전을 전후해서 일본 무대에 서게 됐고, 후에는 김연자, 강수지 등이 TBS 도쿄음악제를 계기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우선, 일본 가요제에 참가했던 해외 가수들의 내한공연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해외 대중가수들의 내한공연은 꾸준히 있어왔다. 1960년대에는 패티 페이지(Patti Page), 냇 킹 콜(Nat King Cole), 클리프 리차드(Cliff Richard) 등 영미권 가수들의 내한공연도 있었고, 클라우디오 빌라(Claudio Villa), 밀바(Milva), 질리올라 칭케티(Gigliola Cinquetti) 등 이탈리아 칸초네(Canzone) 가수들의 내한공연도 1960년대뿐 아니라

1970년대에도 꾸준히 있었다.[44] 하지만 일본 국제가요제의 개최 이후 생겨난 변화는 국제가요제를 통해 일본에 진출한 가수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1971년 겨울에는 1970년 제1회 야마하 세계가요제 우승자인 이스라엘의 헤드바와 데이비드(Hedva and David)가 서울 시민회관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45] 이는 TBC를 통해 중계방송된다.[46] 1974년 12월에는 야마하 세계가요제 본선에 진출했던 미국의 테이스트 오브 허니(Taste of Honey)가 MBC 〈토요일 토요일 밤에〉에 출연한다.[47] 홍콩의 진추하(Chelsia Chan)도 1975년 야마하 세계가요제에 출전한 후, 〈사랑의 스잔나〉(1976)와 〈추하, 내 사랑〉(1977)이라는 두 편의 한향(韓香) 합작영화에 출연한다.[48] 1979년에는 TBC의 초청으로 같은 해 야마하 세계가요제 대상 수상자인 영국의 보니 타일러(Bonnie Tyler)가 내한하기도 한다.[49] 1980년대에 접어들면 '사건들'이라 칭할 만한 두 팀의 내한공연이 있었는데, 영국의 둘리스(The Dooleys)와 놀란스(The Nolans)의 내한공연이 바로 그 '사건들'이었다. TBS 도쿄음악제 1980년 금상 수상 팀인 둘리스

---

44) 물론 이들의 한국 방문도 일본 방문과 연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밀바는 1964년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우나 세라 디 도쿄(ウナ・セラ・ディ東京)〉라는 제목의 일본어 싱글 음반(리메이크 음반)을 발표했다. 원곡은 일본의 유명한 쌍둥이 자매 듀오 쟈 피나츠(The Peanuts)가 부른 동명의 일본 가요곡이었다. 이후 밀바는 일본에서 여러 장의 일본어와 이탈리아어 싱글과 앨범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1972년에 처음 방문하여 그해 성음에서 〈Milva in Seoul〉이라는 라이브 음반을 발매했다.

45) 헤드바와 데이비드의 야마하 대회 우승곡인 〈나오미의 꿈(נעמי על חולם אני)〉은 정훈희, 김추자 등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불렀다.

46) 〈TBC TV 70年度 東京가요祭 그랑쁘리 受賞者〉, 『동아일보』, 1971.12.22., 8면. 후에 헤드바는 1981년 제3회 KBS 세계가요제에 참가한다.

47) 〈黑人 보컬그룹 出演〉, 『조선일보』, 1974.12.14., 8면.

48) 〈홍콩女優 陳秋霞 한국에〉, 『경향신문』, 1977.5.10., 6면. 〈사랑의 스잔나〉는 1976년 최고의 흥행작(국산영화로 분류)이었다. 〈映畵界 자료〉, 『조선일보』, 1976.12.17., 5면.

49) 〈영국가수 「보니 타일러」 스페셜〉, 『동아일보』, 1979.11.21., 8면.

는 1981년에,[50] 1981년 대상 수상 팀인 놀란스는 1982년에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각각 내한공연을 했다.[51] 이들의 공연이 "사건들"인 이유는 이들이 내한을 전후하여 형성기의 한국 음반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놀란스와 둘리스는 1980년대 초반 비틀즈 못지않게 많은 음반을 한국에서 판매하였다.[52]

1982년에 이르면, MBC 라디오 〈2시의 데이트〉의 진행자였던 김기덕은 한국의 "팝음악" "수용감각"이 미국보다는 한 달이 늦어도 일본과는 함께 간다고 말하기에 이른다.[53] 그가 말한 의도는 한국이 일본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을 테지만, 결국 그의 말은 한국의 외국 대중음악 "수용감각"이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분명 일본 국제가요제의 영향이었다. 비유를 사용하자면, 국제가요제로 인해 한국의 소위 "팝음악" 시간은 일본과 같은 시간, 즉 일본 표준시(JST)에 맞춰지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국제가요제로 인해 생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한국에도 국제가요제가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국제가요제를 꿈꾼 이는 아마 한국일보의 연예부 기자 정홍택일 것이다.

> 나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열리는 야마하 국제 가요제를 참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속이 상해서 혼났다. "왜 우리는 저런 가요제를 개최 못하는가?" 노래라면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 부르고

50) 강상헌, 〈둘리스 來韓公演 讚辭와 非難과〉, 『동아일보』, 1981.2.17., 12면. 둘리스는 이후 1982, 1983, 1989년에도 내한공연을 했다.
51) 〈팝의 요정 「놀란스」 來 2일 來韓 공연〉, 『경향신문』, 1982.3.25., 12면. 〈音樂〉, 『조선일보』, 1982.4.13., 12면.
52) 〈레코드街 어떤 것이 잘팔리나〉, 『동아일보』, 1981.8.19., 12면. 이성수, 〈우리나라 팝송팬 어떤 노래 좋아하나〉, 『동아일보』, 1981.10.14., 12면.
53) 정중헌, 〈팝스'82 전문가 3人의 "豫言"〉, 『조선일보』, 1982.1.1., 23면.

> 좋은 곡도 많이 만드는데 말이다. 이건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국제 가요제를 하지 말고, 국내 가요제라도 몇 번 해 보다가 경험을 쌓아서 국제 규모로 가면 될 것이 아닌가.[54]

정홍택은 야마하 세계가요제를 참관한 후, 질투와 좌절을 느낀다.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것은 경제적인 능력뿐, 한국인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서술했듯, 정홍택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현미, 이봉조, 그리고 TBC의 황정태와 함께 그리스 송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적도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난다. 그 중요한 인물이란 바로 일본의 재즈 음악가 하토리 료이치(服部良一, 1907~1993)였다. 하토리 료이치는 1978년 한국의 첫 국제가요제인 MBC 서울국제가요제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하며, 초기 한국의 국제가요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55] 1971년까지만 해도 그는 아직 정홍택과 함께 아테네의 심사위원석에 앉아있었다. 그러던 그가 1년 후인 1972년 6월 심사위원장으로서 TBS 도쿄음악제를 이끌어가게 된다.[56] 정홍택으로서는 이 또한 "속이 상해 혼날" 일이었을 것이다.

정홍택도 가요제를 개최한다. 그는 일단 국내가요제를 개최해서 이를 국제가요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일보 장강재 사장과 장기영 회장의 승낙을 받아 1974년 9월 13일부터 3일간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대한극장에서 제1회 한국가요제를 개최하였다. 심

54) 정홍택, 〈[한국 연예기자 1호 정홍택의 지금은 말할 수 있다] 〈30〉 한국 가요제〉, 『한국일보』, 2008.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810210025501826.

55) 〈서울 국제가요제 大盛況 "대중문화 高級化의 可能性 보여"〉, 『동아일보』, 1978.7.4., 5면.

56) "Hattori was Chief Judge", *Billboard,* 1972.6.3., p.47. 하토리 료이치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TBS 도쿄음악제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사위원은 음악평론가 황문평과 이백천, 작곡가 이봉조와 길옥윤을 포함 총 60인을 선정하고, 기성과 신인 작곡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300여 곡이 출품되어 3일간 예선과 본선을 통해 우승곡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정확히 야마하 세계가요제와 같은 형식이었다. 정홍택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우 근소한 차이로" 김기웅 작곡 박경희 노래의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가 1위,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2위를 차지한다.[57] 김기웅과 박경희는 이 대회 우승으로 야마하 세계가요제에 참가 자격을 얻는다.[58]

정홍택의 대회는 1회가 마지막 대회였다. 하지만 정홍택의 꿈은 당시 하나의 회사였던 MBC와 경향신문이 대신 실현해간다. 3년 후 1977년에 서울가요제라는 이름의 가요제를 개최했던 것이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MBC-경향신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본, 홍콩, 대만의 제휴 방송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78년부터는 서울가요제를 아시아 중심의 국제가요제로 발전시킬 포석이었다. 그리고 MBC "팝스 오케스트라"를 40인 규모로 확대한다.[59] 신시사이저를 사용한 디스코가 한창 인기를 얻고 있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국제가요제는 관현악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1977년 MBC 서울가요제는 5월 28일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런데 그 취지가 자못 흥미롭다. 당시 경향신문 1977년 3월 27일자 1면에는 "무질서한 양산(量産) 풍토 속에 저속한 노래가 범람"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가요제를 개최한다는 취지설명이 나온다. 건전가요 담론이 가요제의 담론으로 계승된 것이었다.[60] 이 대회의 그랑프리 격인 최

57) 정홍택, 〈[한국 연예기자 1호 정홍택의 지금은 말할 수 있다] 〈30〉 한국 가요제〉, 『한국일보』, 2008.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810210025501826.
58) 1974년 11월 16일에 열린 예선에는 참가했으나, 17일에 열린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59) 〈韓國 가요계에 새 活力素 서울歌謠祭 창설〉, 『경향신문』, 1977.1.31., 6면.

우수 작품상은 길옥윤이 만들고 혜은이가 부른 〈당신만을 사랑해〉였다. 한편 해외에서 온 초대가수들도 관심을 끌었다. 일본 쇼와시대 최고의 남성 가수 중 한 명이었던 스기와라 요이치(菅原洋一)를 비롯해, 대만의 루이스 추이(崔苔菁)와 홍콩의 마이클 라이(黎小田)도 초대되었다.[61] 이들은 MBC와 협약을 맺은 각국의 방송국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서울가요제에 온 것이었다. 결국 가요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62] 노래는 저속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주최 측은 아시아의 다른 방송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MBC-경향신문은 1978년 드디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가요제를 개최한다.

4. 인터아시아적 관점과 세계시장: MBC 서울국제가요제와 TBC 세계가요제

1978, 1979년의 MBC 서울국제가요제는 1980년과 1981년의 대회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다. 첫 2회의 서울국제가요제는 사실상 아시아가요제 혹은 아시아·태평양가요제라고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일본과 유럽의 정상급 가수들을 초청한 1979년 제1회 TBC 세계가요제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63] 이에 MBC는 유럽의 유명한 작곡가들을 초청하여

60) 〈제1회 서울歌謠祭〉, 『경향신문』, 1977.3.24., 1면.
61) 경쟁부문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서울歌謠祭를 마련〉, 『조선일보』, 1977.5.26., 8면.
62) 〈暗票 많았던 서울歌謠祭〉, 『동아일보』, 1977.6.4., 5면.
63) 조선일보 정중헌은 두 가요제를 상반되게 평가한다. 정중헌, 〈演出 돋보인 쇼····세계歌謠祭〉, 『조선일보』, 1979.12.16., 5면. 정중헌, 〈"特性" 없었던 「79서울 국제 가요제」〉, 『조선일보』, 1979.6.10., 5면. 『빌보드』는 제1회 TBC 세계가요제를 "a notable succes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International Brief", *Billboard,* 1980.10,18., p.60.

자신들의 대회에 권위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가요제연맹(FIDOF)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1980년 대회부터는 유고슬라비아 국제가요제연맹이 깊이 개입하면서 유럽과 미주의 작곡가와 가수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국제가요제가 된다.

1970년대(1978, 1979)의 MBC 서울국제가요제는 아세안(ASEAN) 국가와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이 중심이 된 행사였다.[64]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아시아인으로서의 선명한 자부심, 반(反)서구 정서, 심지어 반미(反美)감정까지 느껴진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황문평은 1978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가 끝난 후,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속적 정서", "로컬리티" 등을 강조하며, 송창식의 〈토함산〉을 상찬한다. 반면 일본 대표로 참가한 시몬 마사히토(子門真人)에 대해서는 "미국 팝송가수 엘튼 존의 흉내"를 너무 많이 내는 바람에 스기야마 고이치(すぎやまこういち)[65]의 격조높은 작품(최우수작곡상 수상)에 "마이너스"가 됐다고 혹평한다.[66] 엘튼 존이 미국 가수도 아니지만, 시몬 마사히토가 엘튼 존의 흉내를 냈는지도 의문이다. 시몬 마사히토는 원래 〈가면라이더(仮面ライダー)〉나 〈과학닌자대 갓챠만(科学忍者隊ガッチャマン)〉[67]과 같은 만화영화의 주제가를 부르던 가수였다.[68] 만화영화 주제곡 가수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황문평에게는 미국 팝송의 영향을 받은, 곡 "해석"의 실

64) 서울국제가요제 사무국 간사 김우룡은 대회가 열리기 4개월 전 동남아시아의 각 방송국을 방문하며, 가요제를 준비한다. 〈서울 가요제 사무국간사 업무협의차 東南亞 순방〉, 『경향신문』, 1978.2.18., 6면.

65) 스기야마 고이치는 영화음악, 광고음악, 텔레비전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족적을 남긴 작곡가이다. 1960년대 말 "그룹사운드(グループ・サウンズ)" 쟈 타이가스(The Tigers)를 위해 다수의 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66) 황문평, 〈「音樂現代語」의 광장: 78 서울국제가요제 總評〉, 『경향신문』, 1978.7.4., 5면.

67) 한국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제목으로 번역, 방영되었다.

68) 만화영화 주제가를 주로 불렀지만, 시몬 마사히토는 당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이었다.

수로 이해됐던 모양이다.

이런 비서구지향의 반미 정서는 또 다른 심사위원이었던 최경식이 필리핀 대중음악재단 수석 부이사장 안토니오 바레이로와 나눈 인터뷰에서도 발견된다. 바레이로는 필리핀 음악 프로그램에서 미국 가요의 비중을 낮추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 정도를 빼면, 그다지 아시아 대중음악의 미국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내비치지 않는다. 하지만 최경식은 계속해서 미국화에 저항하는, 문화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 대중음악의 견본시장"처럼 돼버린 일본의 두 국제가요제와 달리 서울국제가요제는 "동과 서가 대등"하게 만나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69] 이건 단순히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1978년 대회에서는 필리핀 작곡가 라이언 카야밥(Ryan Cayabyab)에게, 1979년 대회에서는 윤항기와 윤복희에게 대상을 수여하는 등 MBC는 서울국제가요제를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치렀다.

TBC 세계가요제는 이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진행되었다. 가요제의 프로듀서였던 조용호[70]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1971년 이봉조와 펄시스터즈를 따라가서 야마하 세계가요제를 직접 취재하고,[71] 1978년 TBS 도쿄음악제에는 김기웅이 작곡하고 박경희가 부른 〈머무는 곳 그 어딘지 몰라도〉의 작사가로 참가하는 등 일본의 국제가요제의 시스템을 익힐 기회가 많았다.[72] TBC의 선택은 야마하 가요제

69) 최경식, 〈필리핀 大衆음악재단 首席부이사장 안토니오 바레이로씨와 만나-서울歌謠祭는 東과 西의 만남〉, 『경향신문』, 1978.7.1., 4면.

70) 조용호는 황정태에 이어 〈쇼쇼쇼〉의 PD를 맡았다. 그 전에는 〈원투쓰리고〉와 같은 청소년 대상 쇼프로그램의 PD였다. 훗날 엠넷(M-Net) 전무를 역임하기도 한다. 박용규, 「1970년대의 텔레비전과 대중음악-청소년 대상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7, 18쪽.

71) 〈25일부터 제2회 동경가요제 「펄 · 시스터즈」 · 이봉조 참석〉, 『중앙일보』, 1971.11.20., 8면.

보다는 TBS 가요제에 가까웠다.

야마하 쪽은 이미 MBC가 많이 참고하고 있었다. MBC는 후지테레비와 협약을 맺어, 야마하 세계가요제의 중계권은 물론, 야마하 세계가요제 한국 예선을 치를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1978년 서울국제가요제 국내예선에는 야마하 재단 소속 작곡가가, 본선에는 스기야마 고이치, 시몬 마사히토 같이 당시 후지테레비와 관계가 있던 작곡가와 가수가 참가했던 것이다.[73] 반면 TBC는 TBS 도쿄음악제의 시스템을 많이 따랐다. 우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순으로 시상하는 방식부터가 TBS의 방식이었다. 참고로 MBC는 1980년 대회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 둘째, MBC가 작곡가의 권위를 강조한 반면, TBC는 TBS처럼 가수의 기량과 상품성을 중요시했다. 다시 말해, MBC는 야마하처럼 창작곡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강조한 반면, TBC는 TBS처럼 기성곡의 출품도 가능하게 했다.[74] 여기에서 특히 두 번째 차이는 의외의 결과를 낳는다. MBC 서울국제가요제는 남성 작곡가 중심의 대회가 되고, TBC 세계가요제는 여성 가수 중심의 대회가 되었던 것이다. 1979년 제1회 TBC 세계가요제에는 20명의 가수들이 참여했는데, 이 중 18명이 여성 가수였다. 가수 중심으로 대회가 치러진다면 당연히 여성 중심의 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TBC 세계가요제 참가자 및 수상자 목록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 국제가요제 참가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9년 12월

---

72) 동상을 수상했다. 〈김기웅씨 작곡 『머무는곳…』 일 국제가요제 예선통과〉, 『중앙일보』, 1978.4.29., 5면.

73) 1978년 서울국제가요제 국내예선에는 "하야시 마사히코"라는 이름의 야마하 재단 소속 작곡가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안건혁, 〈'78 서울國際歌謠祭 국내大會 27일 華麗한 개막〉, 『경향신문』, 1978.5.25., 5면.

74) 예를 들어, KBS가 주최한 3회 대회(1981)의 대상 곡인 새미 조 콜(Sami Jo Cole)의 〈어쩔 수 없어요(I Can't Help Myself)〉는 리메이크 곡이었다.

에 열렸던 1회 대회 대상 수상자인 일본의 오하시 준코(大橋純子)는 같은 해 6월 TBS 도쿄음악제에서 같은 곡(〈Beautiful Me〉)으로 최우수가창상을 수상한 바 있었고, 금상 수상자인 질다 줄리아니(Gilda Giuliani)는 1972년 야마하 세계가요제 그랑프리, 1978년 야마하 세계가요제 가창상을 수상했었다. 이런 경향은 대회가 폐지되는 1981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한국은 독립적인 음악시장이 아니었다. 가요제 참가를 고려하는 해외 뮤지션들에게는 일본이라는 거대시장의 일부였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오는 가수와 작곡가들이 많았던 것이다.

또 다른 경향은 TBC 세계가요제는 1978년과 1979년의 MBC 서울국제가요제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저항 정서라든가 극복 의지 같은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TBC 세계가요제의 심사위원 명단에는 에드워드 A. 그린이라는 미8군 군악대장의 이름이 보인다. 그는 1979년 대회와 1980년 대회에 모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세 명 중 한 명이었다. 미 군악대장이 계속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미 군악대가 행사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었다. TBC는 당대 최고의 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8군 악단에서 연주자들을 초빙해서 연주의 질을 높였다.[75] 1979년 대회 대상 수상자 오하시 준코(大橋純子)는 TBS 도쿄음악제(6월 17일) 때보다 TBC 세계가요제(12월 9일)에서 더 좋은 공연을 했는데, 이건 '한미 연합' 악단의 연주가 큰 역할을 한 것이었다.

1980년『빌보드(Billboard)』와의 인터뷰에서, 조용호는 세계가요제의 실황음반을 북미시장에서 출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76] 그래서인

75) 뉴욕에서도 연주자들을 초청해왔다고 한다. James Wade, "Future Uncertainty of Seoul Music Contest", *Billboard,* 1980.12.13., p.70.

76) "International Brief", *Billboard,* 1980.10.18., p.60.

지 TBC 세계가요제의 심사위원 명단에는 미국 대중음악산업 관계자들의 이름이 보인다. 1979년 TBC는 이미 『빌보드』, 『캐쉬박스(Cashbox)』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잡지라고 불리던 『레코드 월드(Record World)』의 수석 부사장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한 바 있었다. 1980년에는 미국의 음반회사 크림 레코드(Cream Records)의 부사장 로버트 와이스(Robert Weiss)를 초청해 TBC 세계가요제는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한다.

일본 친화적이고, 미국 지향적이었지만, TBC 세계가요제는 또한 유럽과의 연계도 갖고 있었다. 1979년 대회를 예를 들어보자면, 1977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프랑스의 마리 미리엄(Marie Myriam)은 꽤 거물급 참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제가요제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 온 경우였다. 핀란드의 페이비(Päivi Paunu)는 197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핀란드 대표로 참여한 가수인데, 이 가수도 일본에 진출한 경력이 없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산주의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서 알렌카 핀테리치(Alenka Pinterič)[77]라는 가수가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심지어 동유럽국가에서도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고슬라비아 스플릿에 본부를 둔 국제가요제연맹(FIDOF)의 역할이 컸다. 국제가요제연맹의 사무총장 알만도 모레노(Armando Moreno, 1921~2005)는 심사위원으로 1979년과 1980년 대회 모두 TBC 세계가요제에 참석했다(〈표 1〉 참조). 국제가요제연맹은 1980년 대회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데, 유고슬라비아 최고의 여가수 중 한 명인 라도이카 쉬웨르코(Radojka Šverko)와 역시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인 알피 카비요(Alfi Kabiljo)를 TBC 대회에 참가시켰

77) 슬로베니아의 가수, 배우, 겸 작가(1948년생)이다. 2006년에는 티토 정권 하의 유고슬라비아 연예계에 관한 『비틀즈와 티토와 나(The Beatles, Tito in jaz)』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Alenka Pinterič", *Obrazi slovenskih pokrajin,* https://www.obrazislovenskihpokrajin.si/oseba/pinteric-alenka/

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1980년 심사위원이었던 미국 크림 레코드의 로버트 와이스(Robert Weiss)도 국제가요제연맹의 임원을 지내는 등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78] 국제가요제연맹이 행사의 조직과 진행은 물론, 행사 실황음반의 미국 및 유럽시장 판매까지 모두 디자인해준 셈이었다.

정리하자면, MBC 서울국제가요제는 적어도 1978년과 1979년 대회는 아시아의 협력방송국들의 도움으로 아시아·태평양 가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이었던 황문평과 최경식은 미국화, 일본풍, 상업주의를 경계하고, 아시아 각국의 전통적 리듬과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이 서울국제가요제를 통해서 발굴되고 공연되기를 바랐다. 반면, 이봉조와 황정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TBC 세계가요제는 일본 국제가요제에 참가했던 가수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왔다. 그리고 미8군 군악대와 미국 뮤지션들의 도움을 받아 악단을 보강하고, 미국 음반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국화를 꾀했다. 게다가 국제가요제연맹의 도움을 받아 서유럽은 물론 유고슬라비아의 가수들도 참가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제 MBC도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국제가요제연맹에 손을 내민다.

5. 유라시아적 연결망: 알만도 모레노(Armando Moreno)와 국제가요제연맹(FIDOF)

MBC의 서울국제가요제는 1979년에 국제가요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

78) "Join FIDOF Today", *Billboard,* 1987.1.31., p.65.

입한다.[79] TBC의 세계가요제도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해 12월 TBC 세계가요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제가요제연맹의 실질적 리더이자 사무총장이었던 알만도 모레노가 내한한다. 모레노의 내한은 TBC 가요제(12월 9일)의 참석만이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12월 11일 MBC를 방문해서 MBC-경향신문의 사장인 이환의[80]를 만난다.[81]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의 일들로 미루어보아, MBC와 국제가요제연맹의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1980년 국제가요제연맹은 미뎀, 즉 칸 음악박람회(MIDEM: Marché International du Disque et de l'Edition Musicale)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MBC 서울국제가요제에 "세계가요제상"을 준다.[82] 국제가요제연맹이 MBC 서울국제가요제도 TBC 세계가요제와 같은 수준으로 적극 후원하겠다는 신호였다.

1980년 5월 24일에 열린 MBC 서울국제가요제에는 3명의 유명한 유럽 작곡가가 참가한다. 영국의 레스 리드(Les Reed)[83], 스페인의 페르난도 모레노(Fernando Moreno),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알피 카비요(Alfi Kabiljo)였다. 이 대회에 레스 리드는 마릴린 밀러(Marilyn Miller)[84]라는 가수와 함께, 페르난도 모레노는 자신의 아내인 가수 베티 미시에고(Betty Missiego)와 함께,[85] 그리고 알피 카비요는 크루노슬라브 슬라비

79) 〈MBC 서울국제가요제 국제연맹 정회원으로〉, 『동아일보』, 1979.6.30., 5면.
80) 백암학원(백제예술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81) 〈세계歌謠祭聯 총장 모레노氏 本社 방문〉, 『경향신문』, 1979.12.12., 7면.
82) 〈「79세계歌謠祭賞」 수상 「서울국제가요제」, 6國 경합 끝에〉, 『경향신문』, 1980.2.8., 5면.
83) 톰 존스(Tom Jones)의 〈딜라일라(Delilah)〉, 잉글버트 험퍼딩크(Engelbert Humperdinck)의 〈라스트 왈츠(The Last Waltz)〉 등을 작곡했다. 대영제국 4등 훈장(OBE) 수훈자이다.
84) 마릴린 밀러가 부른 대상 수상곡 〈Everytime You Go〉는 이정희가 〈슬픔 속의 사랑〉으로 번안하여 부르기도 했다. 후에 마릴린 밀러는 마릴린 데이비드(Marilyn David)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나치(Krunoslav Slabinac)와 함께 참가하고, 이들은 각각 대상, 은상, 동상을 수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레스 리드가 한때 국제가요제연맹의 회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1980년 TBC 세계가요제에 심사위원이기도 했던 아우구스토 알구에로(〈표 1〉 참조)에 이어 1977년에 국제가요제연맹 회장으로 피선된 바 있었다.[86] 페르난도 모레노도 아우구스토 알구에로 회장이 주관하던 스페인 마요르카 가요제(Musical Mallorca)에 참여하는 등 국제가요제연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작곡가였다. 그리고 알피 카비요는 알만도 모레노 사무총장이 자랑하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표 작곡가였다.

1년 후 1981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레스 리드는 은상을 수상한다. 대상은 스페인의 아우구스토 알구에로의 차지였다. 물론 이 알구에로는 1973년부터 1977년까지 국제가요제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이후에는 회장 혹은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표 1〉의 그 알구에로[87]는 아니었다. 당시 자료(『빌보드』나 『캐쉬박스』)에는 두 명의 아우구스토 알구에로가 발견된다. 한 명은 아우구스토 알구에로 알구에로(Augusto Alguerό Alguerό, 1906~1992)이고, 다른 한 명은 아우구스토 알구에로 다스카(Augusto Alguerό Dasca, 1934~2011)이다. 1980년 MBC 서울국제가요제 심사위원 명단(〈표 1〉 참조)에 있는 알구에로는 아우구스토 알구에로 알구에로이고, 대상 수상자는 더 젊은 알구에로, 즉 아우구스토 알구에로 다스카였다.[88] 그렇다고 이 두 인물이 전혀 관계가 없던 것은 아니었

85) 이들은 1979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스페인 대표로 출전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한 적이 있다.

86) 이후 1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다. Nigel Hunter, "FIDOF's Fund Raising Plan Tabled; President Resigned", *Cashbox,* 1977.6.18., p.50.

87) "Alguero Named President", *Billboard,* 1973.2.17., p.54.

다. 이들은 스페인 마요르카 가요제(Musical Mallorca)의 총감독과 음악감독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다.

다시 말해, 1980년 MBC 서울국제가요제에서는 국제가요제연맹 전(前) 회장이 대상을 수상하고, 1981년 대회에는 국제가요제연맹 명예회장이며 가요제 심사위원이기도 한 국제가요제연맹 실력자의 아들이 대상을 수상한 것이었다.[89] 다소의 과장을 보태자면, MBC 서울국제가요제는 국제가요제연맹(FIDOF)의, 국제가요제연맹에 의한, 국제가요제연맹을 위한 행사였던 셈이다.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한 일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국제가요제연맹으로서는 자신들이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작곡가들 중 최고들을 선별해서 보낸 것이었을 뿐이었다. 어쩌면 이들이 국제가요제곡의 스타일을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만든 곡들이 국제가요제의 스타일에 잘 맞았을 수도 있다.

TBC가 1회부터 국제가요제연맹을 끌어들이고, 미국의 음악잡지와 음반회사의 주목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황정태, 조용호, 이봉조 등 TBC 관계자들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제가요제에 가서 국제가요제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를 보고 익혔기 때문이었다. 이에 MBC도 사장이 나서서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치러지던 서울국제가요제를 국제가요제연맹과 함께 바꿔나갔다.

---

88) 아우구스토 알구에로 다스카는 스페인에서는 당대 가장 유명한 팝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 아직 20대였던 196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작곡가로서 참가했으며, 1969년에는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다.

89) 당시의 언론 보도에는 국제가요제연맹 회장 아우구스토 알구에로도 심사위원 자격으로 내한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내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 한국언론의 관심은 온통 『빌보드』의 사장인 리 지토(Lee Zito)에게 쏠려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아우구스토 알구에로 알구에로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실제로 그가 참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실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알만도 모레노가 있었다. 1921년 비엔나의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모레노는 2차대전 동안 반(反)나치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전쟁 이후 국제아동기금(UNICEF) 유고슬라비아 지부 지부장이 된다. 그가 유니세프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2차대전 중 이탈리아 빌라 엠마(Villa Emma)의 유대인 아이들을 스위스로 이송(구출)하는 작전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1953년에 그는 유고슬라비아 외교부 소속이 되어 스웨덴에 파견된다. 그가 맡은 일은 북유럽의 관광객들을 유고슬라비아로 유치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모레노는 1962년 지진으로 파괴된 크로아티아 남부(Dalmatia) 관광 도시들의 복구 책임을 맡게 된다. 결국 그는 1967년 크로아티아 해안 도시 스플릿(Split)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가요제를 개최하기에 이른다.[90]

하지만 그의 꿈은 단순히 한 도시의 관광산업 부흥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축제로 세계를 잇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 곳곳에 국제가요제를 만들어, 작곡가와 가수들을 오가게 만드는 일이 그가 국제가요제연맹을 만들며 꿈꾼 일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가 사회주의 관료였을 뿐 아니라, 사업가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국경을 넘고 진영을 초월한 상품과 자본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그는 1966년, 영화제가 열리는 칸(Cannes)에서 국제적인 음반·음악 트레이드 시장인 미뎀(MIDEM)을 중심으로 국제가요제연맹을 조직한다. 그리고 미뎀의 총책임자였던 버나드 쉐브리(Bernard Chevry)를 국제가요제연맹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미뎀이 열리는 프랑스 칸(Cannes)을 국제가요제연맹이

90) Goran Pelaić, "Zapisi I Sjećanja Gorana Pelaića (15) Armando Moreno: Mir i prijateljstvo kroz glazbenu umjetnost", *Dalmacija Danas,* 2020.2.17., https://www.dalmacijadanas.hr/zapisi-i-sjecanja-gorana-pelaica-15-armando-moreno-mir-i-prijateljstvo-kroz-glazbenu-umjetnost/

연례총회가 열리는 장소로 정한다. 각국에 국제가요제를 만들고, 그를 통해 형성된 음악과 음반시장에 세계 각국의 작곡가와 가수들을 오가게 만드는 일, 그리고 미뎀을 통해 다시 그들을 서구의 음악시장에 소개하는 일 등이 알만도 모레노의 국제가요제연맹이 했던 일이었다.[91] 예를 들면, 캐나다의 가수 셀린 디온(Celin Dion)은 1982년 야마하 세계가요제에서 입상한 후 1983년 미뎀에 참여한다. 그러고 나서 198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서 그랑프리를 차지한다. 셀린 디온에게 열린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가는 길은 국제가요제연맹이 미뎀을 통해 열어 놓은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동구권 국가들의 축제들도 모레노의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국제가요제연맹은 폴란드의 소폿(Sopot),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Bucureşti)와 브라쇼브(Braşov), 불가리아의 슬란체프 브리악(Слънчев бряг; Sunny Beach) 등에서 열린 국제가요제에도 관여하였다. 예를 들어, 훗날 러시아의 디바(Diva)로 불리게 되는 알라 푸가초바(Алла Пугачёва)가 일본에서 앨범을 낼 수 있었던 데에도 그에게 1978년 슬란체프 브리악과 1979년 소폿의 무대를 제공한 국제가요제연맹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다.[92]

앞에서도 상술했다시피, 알만도 모레노의 국제가요제연맹은 한국의 두 국제가요제도 바꿔놓았다. 유럽과 미주의 작곡가와 가수를 불러오고,

---

91) 1979년 TBC 세계가요제 직후 알만도 모레노가 가요제의 녹화 필름을 미뎀에서 상영할 것이라는 기사도 찾을 수 있다. 〈청중 사로잡은 「패티 · 페이지」〉, 『중앙일보』, 1979.12.10., 5면.

92) 알라 푸가초바는 1978년 일본 빅터 레코드를 통해 앨범을 발표했고, 1983년 〈백만 송이 장미(百万本のバラ; Миллион Роз)〉라는 제목의 싱글을 발표했다. 〈백만 송이 장미〉는 후에 심수봉이 번안해서 불렀다.

한국 작곡가와 가수들에게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음반산업 관계자들도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크림레코드와 RCA 관계자를 심사위원 자격으로 한국에 오게 만든 건 국제가요제 연맹이었다.[93]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는 한국가요가 영어로 다시 취입되는 "팝송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국산 가요의 「팝송」화 수출은, 근년 들어 국내에서 행해진 몇차례의 세계가요제에서 해외 1급 가수들과 경쟁한 결과 국내 가수들의 수준이 재평가되었고 또 국내 「라이선스·디스크」를 통해 국제 음반 판매망이 확보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음반 제작인들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94]

당시의 한 신문 기사는 "국내에서 행해진 몇 차례의" 국제가요제가 국내 가수들의 수준을 재평가하게 만들었고, 국내 음반 제작자에게 자신감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 국제가요제는 한국의 대중음악 생산자들에게 일본 너머의 세계를 감각하게 해준 것이었다.

6. 결론: 독재 아래서, 축제 안에서

알만도 모레노는 말년에 크로아티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국제가요제연맹을 통해 유고슬라비아의 작곡가와 가수들을 서울에 보낼 수 있었던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95] 슬로베니아(1979년 당시 유고슬라비

93) 〈이·영·일 등 18개국서 참가〉, 『중앙일보』, 1981.10.5., 12면.
94)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가요-국내 「히트」곡을 「팝송」으로 편곡〉, 『중앙일보』, 1980.12.20., 5면.
95) Goran Pelaić, "Zapisi I Sjećanja Gorana Pelaića (15) Armando Moreno: Mir i prijateljstvo kroz glazbenu umjetnost", *Dalmacija Danas,* 2020.2.17.,

아)의 알렌카 핀테리치(Alenka Pinterič)는 자신이 받은 상 가운데 서울에서 받은 상(제1회 TBC 세계가요제 최우수가수상)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밝히기도 했다.[96] 그들은 1979년과 1980년이라는 매우 특수한 시기에 한국에 온 동유럽인들이었다. 덕분에 한국의 대중들은 냉전 한가운데에서도 아주 짧으나마 '해빙'을 맛볼 수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79년 11월 9일 심수봉은 "전에나 '다름없이' 열심으로" TBC 세계가요제 최종예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쇼쇼쇼〉의 무대에 섰다고 한다. 10.26이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평소대로 공연을 이어간 셈이었다.[97] 현미가 1971년에 공연했던 송 올림피아드는 거의 한 달간 계속되었다. 그리스의 독재자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Georgios Papadopoulos)는 축제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가 축출되자 그 축제는 폐지되고 말았다(1974년). 정훈희가 〈무인도〉로 3위를 차지했던 1975년 칠레의 국제가요제가 열리던 비냐 델 마르에서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악명높은 밸파라이소(Valparaiso) 감옥이 있었다. 피노체트 독재 아래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됐고,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다. 축제가 열리던 날에도 밸파라이소 감옥에는 수많은 정치범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98] 이러저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삶과 축제는 계속되었고, 세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중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칠레와 일본에서의 가

---

https://www.dalmacijadanas.hr/zapisi-i-sjecanja-gorana-pelaica-15-armando-moreno-mir-i-prijateljstvo-kroz-glazbenu-umjetnost/

96) "Alenka Pinterič", *Obrazi slovenskih pokrajin,* https://www.obrazislovenskihpokrajin.si/oseba/pinteric-alenka/

97) 〈가수 沈守峰 TBC 세계가요제 豫選 통과…10일밤 쇼프로에〉, 『동아일보』, 1979.11.10., 5면.

98) Katia Chornik, "When Julio Iglesias Played Pinochet's Prison", *The Guardian,* 2014.5.15.,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4/may/15/julio-iglesias-valparaiso-pinochet-chile.

요제를 볼 수 있었고, 세계를 단편적으로나마 감각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작곡가, 가수 등 생산자 중심의 연구였다. 하지만 인터뷰 등을 통한 수용자 연구야말로 냉전 시대 대중음악에 대한 더 풍부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1981년 6월까지의 국제가요제를 분석했다. 이후의 국제가요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 다른 양상에 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제가요제를 통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중반까지 그들은 주로 일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MBC 서울국제가요제을 통해 아시아적인 대중음악을 찾으려 노력하다가 결국 그 너머의 세계를 본다. 그 너머의 세계는 TBC 세계가요제를 통해 먼저 발견한 것이었다. 이들 가요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유고슬라비아의 국제가요제연맹(FIDOF)의 도움으로 유럽, 미주와 직접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결국 세계상(世界像)이 변한 것이었다.

〈표 1〉 MBC 서울국제가요제와 TBC 세계가요제 심사위원 명단

MBC 서울국제가요제 심사위원 명단(1978년)	TBC 세계가요제 심사위원 명단(1979년)
박근숙(위원장), 블루스 웨버(호주), 리이시웅(자유중국), 엘리나 모리스(홍콩), 이스칸다르(인도네시아), 마사루 이노시마(일본), 이사벨라드 실바(말레이시아), 에두아르도 몬티아(필리핀), 만라트 스리카라논다(태국), 율라리 아타멜(터키), 나영수, 李嫩淑[99], 조병화, 최경식, 황문평[100]	알만도 모레노(유고 · 세계가요제연맹사무총장), 토머스 푼도라(미국 「레코드 월드」지 수석부사장), 다까마다 이하라(일본 N-TV 제작국장), 타피오 리포덴(핀란드 국영방송연예국장), 윌리엄 S. 베이츠(주한영국대사), 엘워드 A. 그린(미8군군악대장), 이상회(연세대교수), 김백봉(경희대교수), 이봉조(작곡가), 홍두표(중앙일보 · 동양방송 상무)[101]
MBC 서울국제가요제 심사위원명단(1981년)	**TBC 세계가요제 심사위원 명단(1980년)**
리 지토(빌보드 사장) 아우구스토 알구에로(국제가요제연맹 회장)[102] 로버트 와이즈(미국 크림 · 하이레코드 부사장)[103] 홍의연(MBC 방송담당이사) 등 17명[104]	아우구스토 알구애로(국제가요제연맹 회장), 조지 그릴리(미국 피아니스트겸 지휘자), 쓰다 아끼라(일본N-TV제작국장), 로버트 B. 와이즈(미국크림 · 레코드사부사장), 알만도 모레노(국제가요제연맹 사무총장), 베르나르 폴랭(주한 프랑스대사), 김남조(시인), 이봉래(예총회장), 에드워드 A. 그린(미8군 군악대장), 이봉조(작곡가), 황정태(TBC-TV 제작국장 겸 이사) 등[105]

99) 이교숙(李敎淑)의 오자인 것으로 보인다.
100) 〈比 카야비압(作曲) 알레얀드로 (노래) 組 서울國際歌謠祭大賞 차지〉, 『경향신문』, 1978.7.3., 7면.
101) 〈청중 사로잡은 「패티 · 페이지」〉, 『중앙일보』, 1979.12.10., 5면.
102) 정중헌, 〈그랑프리 누구에게 갈까〉, 『조선일보』, 1981.5.15., 8면. 〈81 서울國際가요제 23日 성대한 開幕 本選 16개國서 18曲競演〉, 『경향신문』, 1981.5.9., 12면.
103) 〈81 서울 국제가요제〉, 『중앙일보』, 1981.5.20., 8면.
104) 〈81서울國際가요제 落穗〉, 『경향신문』, 1981.5.26., 12면.
105) 〈『'80 TBC 세계가요제』 개최〉, 『중앙일보』, 1980.10.18., 1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윤복희, 『저예요, 주님』,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11.

정홍택, 〈[한국 연예기자 1호 정홍택의 지금은 말할 수 있다] 〈30〉 한국 가요제〉, 『한국일보』, 2008.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810210025501826.

정홍택, 〈[한국 연예기자 1호 정홍택의 지금은 말할 수 있다] 〈43〉 그리스 세계가요제〉, 『한국일보』, 2009.1.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901200111927560.

현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문학마을, 1997.

Billboard

Cashbox

2. 논문과 단행본

김창남, 「1970년대 한국 청년문화의 문화적 정체성-통기타음악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2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08, 144-165쪽.

김필호,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록음악-한국 팝의 고고학」, 『문화과학』 6호, 문화과학사, 2005, 211-228쪽.

박경애, 「한국 포크의 '도시민요'적 가능성 탐색-1970년대 포크송과 포크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41권 2호, 한국민요학회, 2014, 53-77쪽.

박용규, 「1970년대의 텔레비전과 대중음악-청소년 대상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7, 5-29쪽.

송화숙, 「대중음악학, 대안적 학문성으로서의 흐름과 전망」, 『음악과 문화』 42호, 세계음악학회, 2020, 91-111쪽.

신현준, 「K-Pop의 문화정치(학)-월경(越境)하는 대중음악에 관한 하나의 사례연구」, 『언론과 사회』 13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5, 7-36쪽.

_____, 「1970-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 서술의 쟁점-불확정적 텍스트와 복합적 매개의 난점」, 『대중음악』 15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5, 93-110쪽.

_____, 「인터아시아 시각에서 아시아 대중음악을 다시 조명하기」, 『황해문화』 89호, 새얼문화재단, 2015, 51-66쪽.
신현준 · 이용우 · 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한국의 포크와 록, 그 절정과 분화』, 한길아트, 2005.
이혜림, 「1970년대 청년문화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대중음악의 소비양상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6권 2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7-40쪽.
임형순, 「7080 캠퍼스 밴드가 한국 록 음악에 미친 영향」, 『대중음악』 13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4, 8-32쪽.
조한혜정, 「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1-42쪽.

3. 기타자료

강상헌, 〈둘리스 來韓公演 讚辭와 非難과〉, 『동아일보』, 1981.2.17., 12면.
안건혁, 〈'78 서울國際歌謠祭 국내大會 27일 華麗한 개막〉, 『경향신문』, 1978.5.25., 5면.
이성수, 〈우리나라 팝송팬 어떤 노래 좋아하나〉, 『동아일보』, 1981.10.14., 12면.
장윤환, 〈표절 판치는 歌謠界〉, 『동아일보』, 1968.7.23., 5면.
정중헌, 〈"特性" 없었던 「79서울 국제 가요제」〉, 『조선일보』, 1979.6.10., 5면.
_____, 〈演出 돋보인 쇼····세계歌謠祭〉, 『조선일보』, 1979.12.16., 5면.
_____, 〈그랑프리 누구에게 갈까〉, 『조선일보』, 1981.5.15., 8면.
_____, 〈팝스'82 전문가 3人의 "豫言"〉, 『조선일보』, 1982.1.1., 23면.
최경식, 〈필리핀 大衆음악재단 首席부이사장 안토니오 바레이로씨와 만나-서울歌謠祭는 東과 西의 만남〉, 『경향신문』, 1978.7.1., 4면.
황문평, 〈「音樂現代語」의 광장-78 서울국제가요제 總評〉, 『경향신문』, 1978.7.4., 5면.
Hunter, N., "FIDOF's Fund Raising Plan Tabled; President Resigned", *Cashbox,* 1977.6.18., p.50.
Wade, J., "Future Uncertainty of Seoul Music Contest", *Billboard,* 1980.12.13., p.70.
Yamaguchi, A., "Festivals, A Shot at the Spotlight", *Billboard,* 1977.4.30., p.67.

ヤマハ音楽振興会, 〈第1回東京国際歌謡音楽祭(第2回より「世界歌謡祭」に名称変更) The 1st Tokyo International Popular Song Festival〉, 『世界歌謡祭』. (https://www.yamaha-mf.or.jp/history/e-history/wpsf/)
Anonymous, "Alenka Pinterič", *Obrazi slovenskih pokrajin.*

(https://www.obrazislovenskihpokrajin.si/oseba/pinteric-alenka/)

Chornik, K., "When Julio Iglesias Played Pinochet's Prison", *The Guardian,* 2014.5.15.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4/may/15/julio-iglesias-valparaiso-pinochet-chile)

Pelaić, G., "Zapisi I Sjećanja Gorana Pelaića (15) Armando Moreno: Mir i prijateljstvo kroz glazbenu umjetnost", *Dalmacija Danas,* 2020.2.17. (https://www.dalmacijadanas.hr/zapisi-i-sjecanja-gorana-pelaica-15-armando-moreno-mir-i-prijateljstvo-kroz-glazbenu-umjetnost/)

Abstract

International Song Festivals and Musicians' Sense of the World
—Inter-Asian Perspective and Eurasian Imagination in the Study of Korean Popular Song during the Cold War

Kim, Sunghee(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how international song festivals shaped Korean musicians' sense of the world in the 1970s and early 1980s.

After the Korean composer, Yi Pongjo, won a top-10 prize at the Yamaha World Popular Song Festival in 1970, an astonishing number of Korean musician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song festivals held in Japan. Meanwhile, Korean broadcasting companies strengthened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Japanese television stations and initiated their own international song festivals in the late 1970s: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s Seoul International Song Festival in 1978 and Tongyang Broadcasting Corporation (TBC)'s World Song Festival in 1979.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its festival, MBC organized its song contest by collaborating with television stations in Hong Kong, Taiwan, Japan, and the ASEAN countries. However, the World Song Festival was more critically acclaimed because TBC invited renowned musicians from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Yugoslavia,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estival Organizations (FIDOF). Thus, from 1980, FIDOF helped MBC attract composers and singers from Europe and America to their Seoul International Song Festival.

This paper sheds light on connections within the popular music aren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outside world during the Cold War—a subject that has been poorly examined.

(Keywords: international song festival, sense of the world, Yi Pongjo, MBC Seoul International Song Festival, TBC World Song Festiva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estival Organizations (FIDOF), Yugoslavia)

논문투고일 : 2021년 1월 8일
심사완료일 : 2021년 2월 3일
수정완료일 : 2021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2월 15일